

- 1、教會에 革新을
- 2、社會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성 경 아 모 스 3 : 2

丁 仁 壽 목사

이스라엘백성은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스스로 자랑하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없이 받을것이며 하나님의 보호가운데서 행복의 생활을 할것이라고 과신할때에 아모스는 이스라엘백성들에게 경고를 발하였다 화 있을 찢겨 여호와 날을 사모하는자여 너희가 어찌 하여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몸을 만나거나혹집에 들어 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물임 같도다 (아모스 5:18-20) 이와같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부인하였다마지막날에 무서운심판을 받을 자는 원수가 아니고 오히려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스라엘민은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고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다 아부라함에 자손으로써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과거의 역사의 사실에 만의 의존할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민의 책임을 양어깨에 메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아모스는 말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 책임을 의행하지못하는 이스라엘백성은 책벌을 받아야한다 「내가 땅에 모든 족속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럼으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였나니」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오나 택한백성이 만일에 범죄할시는 오히려 더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또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끝날은 주님의 노하시는 날이시며 또 도으시는 날리며 구원에 날리요 그 날은 하나님의 창조때와 같이 질서가 없는 것을 질서가 있게 하시는 주님 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한다 역사의 주님이 신 하나님은 나딘선지를 통하여서 범죄한 따윗왕을 경고 함과 같이 아모스선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경고 하였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창공 높이 하늘삼층천에 계시지 안코 시인이 말함과 같이 하나님은 내수족과 같이 가깝고 나의 호흡과 같이 가깝다고 함과 같이 항상 나의 몸주변에 있는 마음속에 계시다 그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면서 공경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항상 모세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자아를 살핀다 모세는 40년간 교양40년간 훈련 40년간 헌역 생활중에 산상에서 바위를 한번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을 듣고 생수가 솟는 다하시니 기뻐서 두번친 모세에게는 그 별로서 120년간 갈망하던 가나안땅에 들어 가지 못하고 산상에 서 멀리 요단강서편에 있는 가나안땅을 바라보기만하고서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죽은 모세의 최후에 그 심정 오늘 우리들에 매일되푸리 하는 생활을 생각할때에 심히 두렵고도 몸이 떨린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 하신 말씀(마태12:36~37)을 보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

던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소의 롭다 참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다여기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자는 조심하여야 하겠으며 시편에 (시 39:1)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 하리니 악인이 내앞에 있을때에 내가 내입에 자갈을 먹이리라함과 같이 우리는 말에 조심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인생의 행동과말에 역사는 내가 말하기전의 타인이 먼저자자의 먹리속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에 과학이 발달되여서 달세계는 점령 할수있으나 남에 먹리속에 나의 행동의 역사가 기억 되어 있는 것은 점령 할수도 없고 그것을 도만 할제조는 없을 것이다 (平野教會)

공동 책임적인 적극 협력이 있게되었다 이성주목사의 가족은 부인 강성옥선생과 장녀 병화 장남 병도 차녀 병진 전부 5식구이다 당분간 경도교회의 지극한호의로 경도교역자숙사에 집을 풀고 이성주목사와 종간사 전영복목사가 북해도로 출장하여 거주할 처소와 예배처를 마련한후 가족을 데리고 札幌로 부임할 예정이다 일본교회와 공동 책임으로 선교활동을 처음으로 하게된 일이니 우리총회는 전교회가 힘써 기도하며 물심 양면으로 적극 도아야 할것이다

第四回 人權を守る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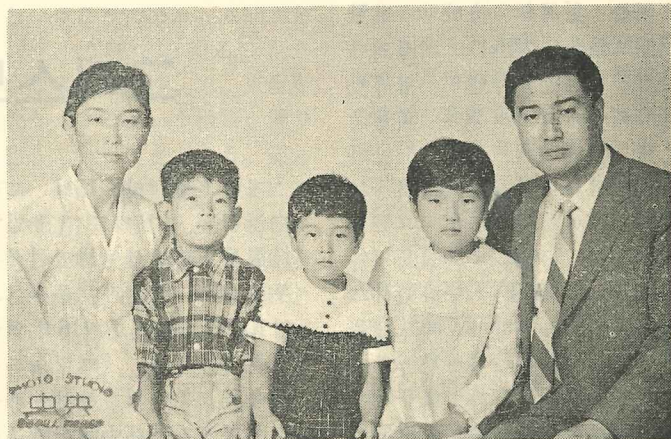
『出入管令と
外国人登録令』

- ・講師……吉岡増雄氏
- ・日時……二月二十三日午後六時半
- ・場所……日本キリスト教団 東梅田教会

北海道 선교사 부임

이 성 주 목사 가족 동반 으로

선교10개년 계획의 북해도 개척전도를위하여 장기선교사로 이성주목사가 일본입국사증이 허락되어 도일하였다 대한기독교감리회 북부연회 파견으로 일본기독교단의 초청수족을 밝아가족동반 도일한다는 어려운 길을 무사히 도착하였다 일본기독교단으로서도 처음맞춤에 의장 飯 清목사로부터 환영회가 있었고 앞으로 札幌에 한국선교사 후원협의회를 조직하여 북해도개척전도에 일본교회의



예루살렘 로마 파리 런던 주내一부를

대 여 행
大 旅 行

★13日間、1970年11月2日~11月14日
★¥467,100-0

기독교자가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낳으셨든 말구유 십자가의 갈보리 겐세마네 요단강 등 성경의 곳곳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이 걸으신곳을 나 도 걸어보는 여행 입니다 그의 구라파의 주요도시를 낯날히 관광하는 대 여행계획에 필 참가하옵기 삼가 바라마지않습니다

海外への
ご旅行は………
株式会社
世界旅行社
本社・大阪市天王寺区筆ヶ崎町17
大阪興銀ビル4 F/TEL 06 (772) 5667
大阪東北営業所・守口市馬場町1730/TEL (991) 3756
Travel Service Co., Ltd.
社長 金 振 玉

— 여전도회 3월 월례회를 위하여 —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부활

마 가 16 : 1~8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삼 일만에 다시 살으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은 안식후 첫날, 주일아침 밝기전에 주님을 사모하여 찾아 온 여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시체는 보이지 않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외침입니다. 만일 이 일이 거짓이었다면 기독교는 설수없고 복음은 헛것이 될 뿐입니다. 오늘의 이 문명화 과학시대에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다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반드시 죽고 죽은자는 다시 살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산자에 대한 진리로 삼아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를 모르고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합당한 진리인가는 미해결 문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여 죄없는 곳에 죽임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고 범한 일도없는 분이 계시다 그 어른은 죽임의 참혹한 자리에서도 조롱과 비방끝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원망의 소리 하나 없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미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며 죽으셨읍니다. 죽음이 이러한 인간에게 합당할수가 없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히 복종하신데 대한 보답입니다. 이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안에 살아 계시어서 그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으로 고달픈 우리의 일상생활을 도우시며 격려 하시며 끝없는 소망의 기쁨을 이트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부터 그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입니다. 다시금 부활은 하나님과 그의 의를 믿는

메서 이러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의 적은 이해로 깨달아 알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들의 인생 체험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이와 사별 하였을때 이 부활의 신앙은 참된 용기를 줍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새힘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죽음은 모든 생물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람에게만은 부자연한 일입니다. 롬펠로는 「인생은 참되다 모지는 그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테니슨은 「모든 것이 모지에서 끝난다면 사람이 세상에 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여 인생의 영원성을 부르짖었습니다.

생시에 예수님을 극진히 사모하여 따르던 여인들의 사랑은 죽음과 함께 그치지 않았읍니다. 그들의 사랑은 종말을 초월 하였읍

니다. 모두가 아직 잠자고 있는 어두운 새벽에 값진 향유를 장만 하여 가지고 무덤으로 떠났읍니다. 「무덤의 그 큰 바윗돌을 우리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수가 없는바…… 누가 옮겨주랴!」 그들은 근심하면서 그대로 갔읍니다. 그들의 정성을 다 하는 슬픈 걸음은 마침내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수 없는 장애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한 길이 열려집니다. 어둠과 실패 낙담중에서도 최선을 다 하여 성실하게 자기의무에 충실할때 기대하지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맛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사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여시고 영광중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訪 伝 레 포 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자

지난 1월14일~15일 南紀白浜의 온천지로 유명한 椿温泉上椿에서 방전판서지 부주최로 각교파 목사신도 약100명 모여서 제16회 연수회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자」라는 포어하에 강사中路嶋雄(日基)中島彰牧師(日本 예수)를 모시고 방문전도의 중요성과 그성과를 새로이 인식하였다.

①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당하여도 그리스도가 제일! 그리스도가 인생의 토대가 되시면 모두가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스도의 절대애의 대상인 한사람 한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사람이 완전히 주의 것이 되는 일이 충만하면 이 세상은 변혁할 것이다

옛날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죄를 범하던 아담 해와를 보고 「아담아! 아담아!」 불르시며 방문하였다. 예수는 갈릴리바다의 어부였던 제자들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다메섹도상 부활의 주가 예수기바울을 방문하였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물인교회가 오늘에는 무너지고 있다. 지금은 악마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시대다. 이때에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밀접하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떠한 폭력도 들어오지못하는 교회가 되여야하며 목사와 신도 신도와 신도가 세상악마와 싸우는 전우가 되여야한다. 방전자는 필연적으로 섬기는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 ② 어떠한 운동이라도 거기에 참가하는 자의 동원에 따라서 정비례 한다고 한다. 교회도 교회의 신도가 어느정도에 참여하고

우리들의 생활이 온 이웃에게 새 힘을 줄수 있도록 힘을 다 하고자……

× ×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 하읍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저희의 안락으로 물려오는 모든 악마의 힘을 넘어서 더욱 더 영원한 소망과 넘치는 기쁨을 힘차게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 멘—

부녀국소식

부녀국주최로 2월18일(水) 오후 4시까지 (1泊2日間) 奈良市菅原町, 桃山荘에서 여전도회 研修회를 엽니다.

참가자격…… 교회 여전도회장 서기 회계(임원들중대리로 혹은 앞으로 수고하게될 젊은 회원들의 자원 참가를 환영함)

참가비…… 一人当 宿泊費 1,500円 集會場所料150円 旅費는 平素에 이모임을 위하여 여러교우님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부녀국장 홍영 기

금은 방전을 새로 시작하려고하는 교회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 그리고 20년이나 계속 되어 있는나 방전에 관한 성경의 연구 신학적위치가 요구되어 있다. ④ 우리제일한국교회 방문전도라하면 춘기대심방추기대심방이며 그외에는 목사가 중심으로 심방하는 정도가 현상이다. 방전조직이라는 근본적으로 방법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지만 방문전도자와 같이 방문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하드시 생활설계를 작성하고 정기적 계속적 전문적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하는 헌신자가 요구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것을 더욱 깊이 알기위해서 이미 이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교회나 방문전도에 관한 서적들을 참고로 연구하여 소원 방전의 참원리와 실천육원칙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 계획정신이 필요하다고 믿읍니다.

⑤ 방전자의 조직은 1951년 스단레-존스와 마킹벨가 시작한 운동인데 여러 제기를 넘어와 지금은 전국방문전도연합회(회장島村龜鶴목사)가 조직되었고 판서는 近畿방전판서지부가 있다.

방전연수회의 특색은 다음과 같이 볼수 있다.

訪伝의 三原理

가)복음전교는 위탁받은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자는 이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를 같이 지니고 나가는 증거의 삶이다. (빌립1:27~30)

나)방전은 신도가 목사와 파-더나가 되여 목사와 신도 신도상호의 기도의 타임워크 전도다. (빌립2:19~30 행18:1~11)

다)방전은 신도가 구도자의 마음의 친구가 되여 책임을 가지고 인도하는 전도봉사다. (요15:12~14 13:12~15)

끝으로 이방전에 참가하는 분들은 신앙을 순수히 생각하고 있고 남의 문제를 자기문제로 삼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것을 밝히는 것이다.

진실로 협력협조 하는 목사신도가 그리스도의 참일군이다.

(布施教会 李昌雨牧師)



教会のいつわりに対する告発

※……今年の青年研修会は過去の研修会と確かに共通点もあった……
……が、かなり違った点もあった。その第一は、危機感であっ……
……た。今の教会の姿ではどうにもならない。このままでは教……
……会がだめに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危機感をもっ……
……て、研修会を準備した点であった。……※

第二は、今までのように研修会の時が来たから、開いてみましようかという行事ではなく、教会の変革という目標をもって、主体的に参加した点であった。第三は研修会の内容はいつもの如く主題講演、聖研、説教という形式ではなく、自分の立場に立つ討論会が中心になり、その内容も教会の自己批判的反省であったという点で過去の研修会と違った。

それでは、この研修会が目指した主な内容はなんであったか。

第一、偽善的教会に対する告発

これは教会あるいは信徒生活の偽善又は偽りの問題である。聖書は、サタンは「偽りの父である」といわれている。それはあたかも信仰深く、しかも真実と正義のために生きているようにみえるけれども、実際はそうではなく、そのかげには自己利益と光栄の追求である。教会は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に基づいて同胞のために存在しているかのようで、実際は何よりもまず、自分の教会の安全と繁栄、そして信徒の幸福と出世を求め、神もこのことを手伝えという調子であり、又同胞のために政治権力に逆って、政治的発言をしているかのようで、実際はそうではない。このような点を青年たちは、あの討論会で教役者に迫った。

第二、主体性追求

これはまず、私達の立場を明確にして、それに対して自ら責任を負って生きることである。従って総会はその独自の立場に立って、わが同胞の魂として、初穂として、同胞が日本で如何に生きるべきか、という模範（Vorbild）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が、総会がその主体的な生き方を目指さないがゆえに、多くの信徒も同胞もどのように生きていいかわからず、迷い混乱している。その実例として

国籍は韓国でありながら、日本名を使う。これは自分自身と日本人を欺むことである。青年たちは研修会で教会又は信徒の主体性を激しく追求した。

第三、宣教内容再検討

今まで宣教といえば、一般的に未信者に伝道して、教会堂に人々を多く集めることであった。そのために教会は信徒の数に捕われていた。牧会の成功か否かという価値判断の基準も信徒の数にあった。しかし青年たちは真の人間を作り出すのが宣教の内容ではないのか。つまり福音に基づく新しい人間形成、意識変革、又は人間革命などによって真の人間を作り出すのが、あのイエス・キリストが指し示す宣教の内容ではないのかと問詰めた。

この文を終るに当って、私はこの研修会の問題点を指摘しよう。

第一 英雄気取り

青年たちは教役者と彼等自身に向って「血の裏付け」を要求した。この言葉の重大さを知っているだろうか。人の命を殺すという意味を。鈴木先生はこの言葉を、「これから命がけでやるぞう」という先取りした悲愴感をもつ言葉としてではなく、ただ主の御言葉に服従しようとした。そして後から考えてみると、「血の裏付け」にさせて下さった神のめぐみとして自分の死を受け止めた。初めから「血の裏付け」を考えなかった。もし私達がこの言葉を自分に他者に要求するとすればその人は一時的英雄にはなりえてもその結末は孤独な敗残者になろう。

第二 青年と信徒と断絶切の危険性

青年たちが教会の変革のために激しい情熱を注いで準備した研修会に対して、多くの教役者、長老、信徒はほとんど関心を示さなかった。ある教会の青年たちでさえあの研

修会を非難するほどであった。これは両方に責任があろう。もし青年たちがどんなにすばらしい真理を主張したとしても、それが青年と信徒と教役者の共同的なものとなつて、具体化されないならば、なんら実のないものとして終るであろう。共同的なものにしてゆく努力が欲しい。

第三 変革の目標の不明瞭性

青年たちが情熱をもって教会の変革を叫ぶ割合にはその目標が明らかでなかったよう

に思われた。どのような教会の変革、その変革への計画性実質性、又教会の問題を克服してゆく方法論、その目指す目標を明らかに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点を見極めず、明確にせず、ただ変革を叫んで走り回っても、皮肉にも反動的なものになる。 (左翼の学生運動のように) ズブニェフ・ブルゼンスキーはこのような問題に対して「革命という名の下に行なわれる反革命だということが非常にしばしばある。事実上計画性、実質を欠くか、又は実質があっても過去に依存して未来への案内を欠くような革命は、本質的には反革命である」(中央公論68,12号)と指摘した。

青年たちが研修会を通して提起した問題は教会にとって重大な意味をもっている。それゆえ、青年、信徒、教役者はこの問題を共同的課題としてその克服のために協力する時、実り豊かなものになる。 (品川教会 金圭昊 牧師)

バルトの勝利の神学

<2> 予定論について

金 承 俊 牧 師

伝統的予定論によれば、「神がある人々を生命の望の中に受け入れ、ある人を永遠の死に定められた。」(綱要3巻21章5節)といっている。そして、これが神の御意の結果だともいっている。つまり何故神はそんな不合理な「しかも不可解なことを永遠より決定されたの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神がそう欲せられたからであって「それ以上問うことこそが不合理であり、神の言はそのあるがまま、何ら割引きすることなく、どんなに人間的に見て不条理であろうとも、そのまま伝えねばならないというわけである。そして、救いを確信する者にとっては、神の憐れみの恵として予定が見られており、救いの確かさを明白にさせる所の神の一方的恵みの保障の徴なのである。

ところが、バルトのいう予定とは、これとは全く異なっているのである。伝統的教理では、救いと滅びという二重が予定されているのであるがバルトのいう二重予定とは全く内容が違っているのである。神が人間を救い給う時損も危険もなしに救い給うの

ではなく、人間を救うためには神が自ら危険を取り給うたということである。人間が救いという利益を得るのなら神は自らの神性、力、支配を危うくするという損害を被り給うということである。従って、神が人間をキリストに在って選り、救い、生命を与え給うたのであるが、他方、自らは拒絶、宣告、死を選ばれたのである。神は人類に「否(ナイン)」、の宣告をされたのではなくて、キリストを否と拒絶されたのであり、それによって、神自ら拒絶と呪いを受けられたのである。

神の子が拒絶されて、我々自身は拒絶さ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経験することが、信仰であり、キリストに在る者はだれでも罪の宣告を受けないのである。

神のこの選り、予定を知った者は、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驚くべきことが客観的になされたということを出て行って大声で叫び、宣教するほか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伝統的教理のように、ある者は永遠の生命に、ある者は永遠の滅びに定められているという考えの中で宣教するのと

は異なり、ここでは、すべての人のためにキリストに在って選ばれているから宣教するのだ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ある。

あなたは選ばれているのだという点が強力に打ち出されているので、これを信ずるか信じないかが大きな問題となつて、不信仰こそが最も大きな危険として示されているのである。既に救いの業はキリストに在って完成し、選りの中に予定されているのにも拘らず、不信仰によって選ばれている事実を自らお断りすることになるからである。我々はみな、良き音信である所の選りの予定の光に招かれている。ここでは既に、神の恵による勝利がなされている故に神の選りの予定は恐れと喜びの混じったようなものではなく喜びそのものである。教会が叫び又、叫ばねばならないのは、これなのだと言っているようである。

私達がもしも伝道をしようとする心を持つのなら、それは裁きを担ってゴルゴタに立ち給うあのキリストを仰ぐ時以外にないのである。この世に在って、もまれていた間は知らなかったことが、教会に在って知ることになった所から、伝道せずにはおれないように狩り立てられるのであるバルトは初代教会の伝道をこのような面から考えており彼らが伝道に出て行ったのは人間を愛する普遍的愛とかいうものからではなく、イエスキリストと人間の生命とに関する具体的真理という使信の切迫した内容からであった。

神の恵みの勝利が既にキリストに在って獲得せられたという点から見れば、死ということも、恐るべき、致命的なものではなくて来るのである。それは、神の裁きということの単なる、一つの徴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何故ならば、死というものがイエス・キリストに在って既に執行され、神の恵みが勝利したからである。我々が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これを伝道するということなのである。(岐阜教会)

印刷



僑文社



聖 書

1. 洗足の信仰は愛の実践としてよく例話として用いられた。一般社会の中では主人は僕に対して一日中畑仕事で疲れて帰って来ても、夕食の仕度をさせ自分の食事がすんでから僕が食事をするようにする（ルカ17:7-9）。

しかし主イエスはそうではなく、僕のために給仕をする主人の姿をとられるのである（ルカ22:27）。それが弟子の足を洗う主イエスである。主イエスはこのことを弟子である私たち信徒にもおおいに足を洗うようにすすめられた（ヨハネ13:14）。二千年も昔に弟子の足を洗われて、目上の方が目下の者に仕えるという奉仕の精神を実践された主イエスは、この世が真に平和な平等の社会となるためにはこれだ、と身ををもって教えられた（マルコ10:45）。

2. 洗足の実践は弟子たち特にペテロには初めはとんでもない逆さの倫理であった。そこで主イエスがペテロの足を洗う時に、決して自分の足は洗ってはなりませんとぎっぱり断った。この拒否は、絶対にこん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の事であった（マタイ16:22）。しかしペテロは主イエスの本当の気持が分らなかったから、がんとして受けつけなかった。その時に主イエスは、足を洗わなかったら係わりがなくなる、と言ったのでびっくりして手も頭も洗って下さいとさし出した。係わりという語は、親交をもつ分け前にあづかる（黙2:19）肉の一部分である（ヨハネ19:23）ということである。

かかわりの信仰

ヨハネ 13:1~11

だからこの足を洗うということは主イエスによって罪より清められ永遠の生命にあづかることである（第1コリント6:20）。

3. 主イエスの譬の中に主人が長旅から帰ってきた時に目を覚まして主人を迎えることの出来る僕に対しては主人が帯をしめて僕たちを食卓につかせ、進みよって給仕してくれるであろう、とある。

（ルカ12:37）これはこの世の主人に出来ることではなく、主の再臨を待ち望むものには主御自身が私たちに天よりの霊的な豊かな恵みを与えて下

さる、ということである（エペソ 1:3）このことは私たちが主によって足を洗わせる係わりをもつことである。その係わりは即ち神の私たちのためにたくわえてある私たちの受るべき分け前を受ける事である（行10:9, 12:12）。私たちはすすんでペテロのように足も手も洗って下さいと申し出て、神の御座に行き（ヘブル 4:16）救い助けを求めて信仰の深い交わりと係わりをもちたいものである。（ヘブル 9:50）

（金元治 西成教会 牧師）

韓 国 旅 日 記 (2)

吉 田 源 治 郎

神信仰に立つ工場

充実した十四日間

私は釜山に上陸後、蔚山（Y M C A 大会）一慶州（一泊 見学）一大邱（二泊 講演五回）一大田（一泊 講演二回）一裡里（イリ放送局で対談）一全州（二泊 講演二回）一光州（二泊 講演三回 新聞記者会見）一（空路）済州島（二泊 講演二回）一（空路）ソウル特別市（三泊 講演一回 見学訪問）一（空路）大阪という相当激しい日程で予定の二週間を韓国で送った。講演という中には教会及学校での宣教がふくまれているし、大邱や光州では社会事業施設、病院等の見学もあった。

釜山では盛昌企業株式会社近代合板製造の大工場を見たが、ここでは社訓のトップに「われらは神を信じ、お互に理解を以て努力する」という声明をかがげ、月一回は牧師を招いて講話を全従業員のためにしてもらっている社長は教会の長老で、Y M C A の協力者であり、釜山の町の背後の丘の上の新しい会堂は社長がほとんど独力で建てたものだ。あいに社長さんは日本へ旅行中で不在であった。

キリスト教の放送局五つ

驚いたことに韓国にはキリスト教専門の放送局が五つも

あるという。すなわち釜山に大邱に、光州に（現在は裡里に）そしてソウルに設置せられ、教会が独自のプログラムを作製して放送をしている。ソウルの永楽教会（長老系）は韓国一の大教会だというのが教会自身のもつH L K Y 局で毎週土曜日の夕7時から9時半まで「希望の時間」という名称でラヂオ伝道を行っている。

私は裡里（イリ）につくとわざわざ全州から駅迄出迎えて下さった全州、聖光教会の林基奉牧師（旧知の間柄）がすぐ様私と共に放送局に行きそこで二人が約30分間の対談を試みた。

私は大田から裡里までひとりぼっちで汽車に乗っていた。周囲は韓国語しか話さない人々のようだし、いささか孤独感におそわれていると20才の韓国青年が「私は先日まで東京にいたものです。電気器具の店で働いていました」といって私に語りかけ、ジュースやなんかを私にすすめてくれるのであった。聞けば光州の近くの農村の実家に帰る途中だが、近くソウルに出て働くのだとのこと。同君は裡里駅では私の手荷物を運んでくれた。私は大助かりであった。私も大田の保育大学長の李善姫さんが昼のために用意して下さいた弁当を出して二人でわけてたべたり……とても楽しいひとときを送った。

此の度の訪韓は、大邱の希望社家具店主で教会長老の李光栄さん（此の方は、久しき以前に私の牧している今津三葉教会の役員でもあった）と、前出の林牧師、光州Y M C A 総務の金天培さんこの三人がコンビになって、一度出かけてくるようにとすすめられたことから実現したものである。

李光栄さんはわざわざ 부산まで前夜から泊りがけで出

てきて私を迎え、慶州では同宿し、大邱の自宅まで案内して下さい。慶州では同地の国民学校の教師をしている長女の李潤子さんが一日学校を休んで父親と共に親切にガイドして下さい。私は天文学に興味があるので、この有名な新羅の古都にある364箇の石で築かれたという世界最古の天文台（紀元647年設立の胆星台）を訪ねて大きな感銘を受けた。慶州博物館のすばらしさはいまでもない。慶州の駅前の食堂は潤子先生の教え子の家だとかであたたかく迎えられて昼食をとった。

光栄さんの夫人は、日本から牧師が来て泊っ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数ヶ月前からフトンを新調して待っていられた。私は、光栄さんの所で生れて初めてオンドルのある部屋で寝泊りしたことはいつ迄も忘れられないことの一つ。

林牧師の教会の長老さんが全州のツーリストホテルを私のために用意され、金天培さんが全州、光州、済州島そしてソウルまで私につき切りで世話をされたこと、至る所のY M C A が私を待ち受けていて集会の準備、町の案内など至れりつくせりのもてなしをされたことなど筆舌を絶する親切さであった。

（日本キリスト教団西宮一麦教会今津二葉教会牧師、社会福祉法人イエス団保育コンサルタント）



印 刷



僑 文 社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電話 大阪 (06) 341-2162

